

▶ **식생활****수도권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는 도시락 부식류에 대한 연령별, 성별 기호도**

이 숙 영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 미 정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강사)

장 소 영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도시락 부식류에 대한 기호도 및 식습관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도시락의 바람직한 개발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6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 313명을 대상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도시락 부식류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및 찌개류의 종류별 기호도를 보면 김치찌개(3.90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미역국(3.80점), 된장국(3.75), 쇠고기국(3.59점), 콩나물국(3.58점), 계란국(3.33점), 북어국(3.33)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호박새우젓국(2.71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토란국(2.76), 냉국(3.05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낮아, 평소에 자주 접하는 국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찜 및 구이류에 대한 기호도를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편육(남자 3.69점, 여자 3.18점,  $p < 0.001$ ), 산적(남자 3.73점, 여자 3.39점,  $p < 0.01$ )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던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계란찜(남자 3.52점, 여자 3.81점,  $p < 0.01$ )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 성별에 따른 유의차를 보였다.

볶음류의 종류별 기호도를 보면, 연령별 및 성별에 무관하게 잡채(3.70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쇠고기볶음(3.69점), 오징어볶음(3.67점), 돼지고기볶음(3.63점), 김치볶음(3.51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볶음류에 대한 기호도에 있어서, 베이컨볶음과 쇠고기 볶음은 20대(각각 3.70점, 3.88점)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0대(각각 3.67점, 3.76점)였다. 어묵볶음은 10대(4.07점)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3.73점), 30대(3.70점)의 순이었다. 한편, 마파두부와 콩볶음은 40대(4.00점, 3.91점)가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60대(3.52점, 3.55점), 50대(3.51점, 3.49점)의 순으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육류볶음을 연령이 높을수록 채소류볶음을 더 선호하였다.

샐러드 및 무침류의 종류별 기호도를 보면, 야채샐러드(3.60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참치샐러드(3.59점), 오징어무침과 콩나물무침(각각 3.42점) 등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며, 겨자채(2.36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도시락 김치류의 종류별 기호도를 보면 배추김치(3.79점)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열무김치와 총각김치(각각 3.65점), 깍두기(3.51점), 오이소박이(3.44점)의 순으로 기호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3.63점)가 남자(3.37점)보다 깍두기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p < 0.05$ ).

그러므로, 도시락의 부식류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정보관리를 체계화하여 고객층에 맞는 도시락의 메뉴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